

PEOPLE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담양군의회는 최근 장명영 의장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명영 의장은 "인구문제는 전국민이 합심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의제이면서 또한 수도권 외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며 "담양군의회에서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의 자력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장명영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서구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선정

남기희 주무관, 주민 소통 '호평'

광주 서구가 적극행정과 정책소통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서구는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성 위해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소통으로 풀어낸 남기희 주무관(사진)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주무관은 아파트 주민 간 찬반이 엇갈리던 청소년 자율공간 설치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경로당 간담회 등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입주민의 70% 이상 참여와 과반수 동의를 이끌어 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하반기 우수사례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설치한 건설과 조태범 주무관, 자원순환 모바일 앱 '은리우즈' 구축을 추진한 자원순환과 김연다 주무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 세무2과 수납팀을 선정했다. 윤용성 기자 yj1404@gwangnam.co.kr



서창농협

조합원 영농 지원 농기계 전달

서창농협은 17일 서창지점에서 이·감사와 영농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농회 농기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창농협은 매년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94대의 농기계와 1억4000만원을 지원하며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분무기,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등 총 124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4700만원을 지원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역맞춤 치안정책 발굴...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 가동

대학생·고등학생 125명 위촉

연말까지 자치치안 정착 역할

“도민의 목소리 전달 해달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7일 도청에서 '2025년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 발대식을 갖고 치안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전남 자치경찰 알리기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발대식은 올해 파트너스로 선정된 125명 중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활동증 수여, 학교별 대표의 활동포부 발표, 카드섹션 기념촬영, 전남도경찰청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 파트너스는 발대식 이후 연말까지 MZ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자치경찰 홍보콘텐츠 제작·소개, 전남만의 특색있는 치안정책 아이디어 발굴, 자치경찰의 다양한 소식을 SNS 전파 등의 활동을 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7일 도청에서 '2025년 전남자치경찰 파트너스'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파트너스 모집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을 치안 정책의 주제로 참여시켜 젊은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특성

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 등을 감안해 섬이 많은 지역 고등학생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함

께 만드는 자치 치안의 정착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므로 파트너스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교통문화연수원-광주자원봉사센터 맞손

대·자·보 정책 시민 공감대 형성 위한 업무협약

광주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병수)과 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류미수)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도시(대·자·보) 정착에 나선다.

두 기관은 17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자·보 도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자·보 도시전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 시민 계도활동 공동 캠페인 전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인 '대·자·보 도시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연수원은 대시민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센터는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실천운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과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대·자·보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과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17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자·보 도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력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문화를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전KDN, 지역 장애인 시설 지원 '훈훈'

창립 33주년·장애인의 날 맞아 생필품 기부

한전KDN은 최근 광주와 나주지역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 제33주년 창립기념일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랑나눔 기부활동은 한전KDN 회사 창립 기념일(4월 20일)과 같은날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되돌

아보고 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하고자 마련됐다.

한전KDN은 나주 수산원, 광주 영광원 등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취약계층 시설 5곳에 생필품 등을 지원하며 환담을 나누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특성을 살린 디지털 지원 서비스 3종(KDN IT 읍, KDN IT ON, KDN IT We로)을 시행하고 있으며 KDN IT ON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IT시설 구축 및 기증으로 진행된다.

KDN IT ON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IT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정보단말기, 책마루 등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정보습득을 할 수 있도



록 지원에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다.

한전KDN은 2022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제1호를 시작으로 2023년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2023년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제3호를 기증하며 KDN IT ON 구축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회사창립의 기본 마음을 담아 후원하는 물품들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로 발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7일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1일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KT 노사, 국가유공자와 '1일 봄나들이'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7일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1일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KT 노사와 광주지방법보충원이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평소 나들이 나서기에 쉽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전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KT 사람의 봉사단이 동행해 국가유공자들을 부축하며 숲 힐링 프로그램을 도왔다. 국가유공자들은 숲속에서 모처럼 자연을 만끽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국가유공자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와 숲속에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며 "이번 나들이는 봄날의 따뜻함과 꽃향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남권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국가유공자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돼 기쁘고 이번 나들이가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장 이·취임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17일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노인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17대 동구지회 노인지회장에 문병을 지회장이 취임했다.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단, 나주경찰서와 합동 순찰 동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단은 최근 나주경찰서와 함께 나주시 대호동 일대를 합동 순찰하며 범죄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제공=동신대